



3면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위원회 가동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윤 2월 6일) 제323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이차전지 사업 중심지 '자리 굳히기'

도, 지이엠코리아·새만금개발청 등과 투자협약

새만금국가산단에 1조2000억 규모... '천군만마' 얻은 셈
SK넥실리스·천보BLS 등 굵직한 이차전지 기업 유치해와
최근 3년간 25개 기업 4조8000억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

전북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혀가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삼아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가치사슬체계 완성을 위해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려 24개 기업 투자규모 약 2조원 가량이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유치가 성공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선도지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특히 도가 이번에 유치한 지이엠코리아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주))의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결정은 이차전지 혁신허브를 조성하려는 전북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이는 지이엠코리아(주)는 국내 코스닥 위기업인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주)와 세계 5위 이차전지 생산업체인 SK온 그리고 중국의 이차전지 소재 업체인 GEM이 합작해 만든 회사로 도내 이차전지 생태계 조

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SK넥실리스 2021년 천보BLS, 2022년 대주전소재 등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해 굵직한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해 냈다. 이 외에도 이엔디, 테이팩스, 에너비배터리솔루션, 프로그래드 등의 기업을 꾸준히 전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해 도는 실효성 있는 이차전지 기업 유치활동을 위해 지난 1월 김관영 지사의 주재로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바 있으며,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이차전지 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비전선포식까지 개최하는 등 연초부터 매일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펼쳐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닦고 관련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관련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한중합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1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GEM 코리아에너지머티리얼즈(주) 투자협약식이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허계화 중국 GEM 회장,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SK 온 최영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인력양성 등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산업육성의 핵심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지이엠코리아(주)가 입주하는

새만금 산단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일하이텍을 포함해, 관련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은 천보BLS, 대주전소재 등이 입지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이차전지 혁신허브 조성에도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폭스바겐이 회사사 파워코(PowerCo)를 통해 배터리를 공급하는 예와 같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흐름 속에서도 전기차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소재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소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배터리 시장의 변화에도 큰 흔들림없이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전북의 강점산업인 탄소소재와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도내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지이엠코리아(주) 투자협약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도내에 투자를 결정한 이차전지 관련 25개 기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4조8,000억원의 생산·부가가치유발과 3만3,871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도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투자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차전지 혁신허브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에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유치된 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지역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공모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유치에 성공한 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갑질 공무원 원거리 배치'... 도, 종합대책 시행

예방-적발-감시-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단계별 추진
징계·각종 후생 복지 혜택 제한 등 인사상·경제적 불이익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지속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전북도는 공식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예방 및 갑질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 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및 갑질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도 소속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력 등 갑질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강력한 예방 및 처벌 방안과 함께 건전한 공직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교육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 등 사전 예방에서부터 피해신고 및 적발·감시,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전북도는 우선 갑질행위 사전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갑질 사례 행정포털 공개 등을 추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직급별 맞춤형 갑질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상·하반기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진단할 계획이다. 또,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지속 운영하면서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조직 내 갑질행위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행정포털에 갑질처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갑질 피해 신고 채널 다변화 등 갑질행위 감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 팀원 5)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익명제 보시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 팝업창에 QR코드를 게시하고, 공무원노조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갑질 상담·신고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벌

도로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가해 당사자는 주요보직 및 희망부서 근무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문책 인사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최하위등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배정, 공무원 국외여행·청원휴양 시설 이용 등을 우선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도 부여한다.

연 2회 이상 갑질 재발 방지프로그램 의무적 이수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24시간 이상 이행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준수사항들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의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제한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한편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의 갑질행위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외의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한다.

도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일상회복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뿐 아니라 2차 피해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와 관련해 직원들의 피해 내용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4월 3일부터 2주간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훈 기자

전북도,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전북도는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고문을 도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답례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 서비스(유가증권) 등 총 4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대해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은 가격대를 달리해 제한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흥사랑기부제(280-2375)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재훈 기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
전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기부자 인증(거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기부자 혜택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